

한라시론



김양훈 프리랜서 작가

고내포구에서 출발하는 제주올레 16코스는 '철무지개'로 불리던 구엄포구에서 한라산을 향해 직각 90도 길을 쭉으면서 마을 변두리인 모감동을 향한다. 모감동은 60년 전 수산저수지 건설로 제 터를 빼앗긴 하동마을 주민들이 이주한 동네다. 조금 더 걸어가면 수산봉이 눈앞이고, 동쪽 기슭 아래 수산저수지가 있다. 논농사가 드문 섬나라에, 더구나 논밭평야가 펼쳐진 곳도 아닌 이곳에 웬 저수지인가 하고 고개가 가웃 거러질 만한 풍경이다. 천연기념물 제441호인 수산곰솔이 굽어보는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모르는 작은 흑역사가 잠겨있는 건 아닐까? 흑이 예민한 여행

답답이내는 왜 바다를 만나지 못했나?

자라던 마을 노인에게 저수지의 탄생 비화를 물어볼 마음이 생길 것이다. 수산저수지 건설은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쌀농사를 짓겠다며 1957년 이승만 정부에 건의해 물꼬를 댔다.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당시, 식량 증산을 독려했던 중앙정부였으니 옳다구나 하고 허가가 떨어졌다. 후일 저수지 건설건의는 흑역사적 단견이란 것이 증명됐으나, 어리석음은 지혜로움보다 끈덕진 법이다. 답답이내를 막아 저수지 독을 쌓는 공사가 곧 시작됐다. 노꼬메오름에서 수산리를 거쳐 구엄리 삼밭알 내각으로 흘러내린 끝에 바닷물과 합류하며 아름다운 여행을 마친 답답이내, 이렇게 저수지 제방에 막혀 '답답이내'가 되는 운명을 맞이해야 했다. 저수지 공사로 오름가름과 벵디가름은 물 아래로 사라지고, 이 마을 70여 세대는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다. 500년이 넘는 조상들의 터전을 한사

코 떠나지 않으려 했으나, 논농사를 지어 곤살을 먹자는 관청의 지시와 그럴싸한 여론에 밀려 하동마을 사람들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들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제주시와 반대동으로 옮겨가고, 일부 세대는 모감동으로 빨뽀이 헤어졌다. 건설회사가 동원한 지열시 탐프트력들이 저수지 공사장으로 석재와 흙덩어리를 실 새 없이 실어 날랐고, 솟새 좋은 석공과 인부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을 먹이는 함바집도 여럿 생겨났다. 수산리와 인근 사람들도 공사판에서 일당을 벌었다. 공판한 시절이라 현찰 만지는 재미가 쏠쏠했다. 한층 한층 올라가는 저수지 제방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쌀농사의 꿈을 꾸었다. 환상은 얼마 없어 안개처럼 사라졌지만, 한바탕 축제라면 축제였다. 1959년 3월 시작된 공사는 1960년 12월 마침내 완공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쌀농업 진흥책을 추진했던 이승만

정권이 4·19의거로 무너지면서 애초부터 예측이 잘못된 저수지는 쌀농사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됐고, 수질과 녹조 때문에 발농사 옹수로도 이용하지 못했다. 녹조가 낀 물로 스프링클러를 돌리면 이끼가 미세한 헤드 구멍을 막아버려 부품을 계속 교체해야 한다. 그래서 농민들은 아무리 가물어도 수산저수지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역 일을 들어가며 수질개선 노력을 해보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1980년대 말 레저회사가 수산저수지를 워터 시설과 유료 낚시터로 개발해 낚시꾼과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 회사는 보트장과 야외 풀장 그리고 식당을 지어 한동안 운영했지만, 현재 그 시설들은 흉물인 채 지극히 방치돼 있다. 제주가 세계 유일 국제 4대 보호지역이라는 자랑 뒤편에 수산저수지와 같은 어리석음이 오늘에 더는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사설

도산위기 태양광 사업, 이대로 둘 건가

제주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믿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영 신통치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거액을 투자한 태양광 사업의 수익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태양광 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일 만큼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당초 기대와 달리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급감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 SMP(전력거래가격)는 kWh당 125원, 육지부는 kWh당 56원입니다. 다른지방에 비해 높았던 SMP 차이가 갈수록 육지국제 4대 보호지역이라는 자랑 뒤편에 수산저수지와 같은 어리석음이 오늘에 더는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수익구조입니다. 그런데 도내 발전소들이 올해 상반기 LNG발전으로 전환하면서 제주지역 SMP 단가가 급락하면서 도산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소득 증대방안으로 주목받았던 태양광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심각합니다. 특히 REC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REC 가격은 2018년 평균 10만원을 유지하다 2019년에는 평균 5만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SMP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REC 가격은 사실상 0원으로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태양광 전기를 사들이는 한전에만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매입으로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한전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때문에 태양광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합니다.

학교현장 일제 잔재 청산작업 서둘러야

제주 학교현장에 여전히 일제 잔재가 수도룩합니다. 광복 이후 무려 75년이 지났고, 수많은 일제 잔재 청산작업을 외쳐 왔지만 미래세대를 가르치는 교육현장에 버젓이 일제 잔재들의 존재 현실이 존재여부를 인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와 각 학교와의 정보 공유, 청산 이행 등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도내 학교 현장 일제 잔재는 작년 공포된 '제주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달 초 발표된 '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연구' 중간보고서로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학교 현장 일제 잔재를 보면 일본 왕실의 국화 문장과 일장기를 결합해 만들어진 육일문(旭日文)을 '교표'에 사용한 학교가 4개 초등학교였습니다. 육일문은 애국의 소통을 강조하며 민원인에 대한 배려에 더욱 노력할 것

도 당부했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편집국 25시

LNG복합화력발전소, 소통의 아쉬움



이태운 정치부 기자 ity9456@ihalla.com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LNG복합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할 LNG 수송관 설치에 내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애월항 LNG인수기지에서부터 남제주LNG복합발전소까지 이어지는 LNG 수송관 설치와 관련해 매설지역인 안덕면 동광·상장·감산·화순·광평 지역 등 5개 마을은 안전상의 이유로 등으로 매설을 반대하고 있어 매설 사업은 첫삽조차 뜨지 못했다. 또한 LNG수송관 매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마을간 협의는 수개월째 지지부진해 매설 사업의 완료 시점은 지속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송관 매설 사업이 주민 반발로 정상 추진되지 못하면서 현재 준공을 앞둔 남제주LNG복합화력발전소는 LNG 대신 화석연료인 경유를 활용해 시범운영에 나서고 있다.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남제주 LNG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친환경 에너지 대체 계획이 무사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남제주발전본부 내 내연발전소 폐지 부지 3만1000㎡에 건설하는 LNG복합발전소는 사업비 3800억원을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당초 준공 이후 도내 전력예비율 확보는 물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해 도내 전력계통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남제주LNG복합화력발전소는

뉴스-in

코로나특위 "기재부 면세점 특허 답변 유감"

9일 기재부 서면답변 공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를 촉구해 온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이하 특위)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 특위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의원이 기재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관련 서면 질문과 답변 내용을 공개. 특위는 "기재부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시장 참여자의 혼란 초래라는 명분으로 보세관매장 제도개선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오은지기자

사업자 선정 재공고를 실시했으나 도내 금융기관중 제주은행만 참여하고 당초 예상했던 농협은행은 경쟁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 이에 대해 도내 금융업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 공모 참여를 포기한 것 같다"고 분석. 고대로그기자

농협은행 개발공사 공모 불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자금 지정 금융기관 사업자 선정 공

태풍 피해접수 적극 홍보 당부

○...안동우 제주시장은 9일 오전 부시장·국장이 참여하는 간부회의에서 내년 세입 감소로 인한 세출구조조정 등에 따라 신중한 예산 편성을 주문. 특히 시의 발전동력 구축과 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제주형 뉴딜사업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강공 시중(향년 8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9월 10일 부인 홍산옥, 아들 강태영, 딸 유두현, 강현숙, 현주, 민경현, 아들 김태영, 며느리 양은희, 김귀남, 사위 고우시, 김관희, 강형록, 조수기, 임제홍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완산최공 연주(향년 8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9월 10일 아들 최희철, 며느리 송영숙, 딸 원철, 최홍, 영철, 최영미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릉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군위오씨 병연(향년 8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9월 10일 아들 현대영, 며느리 김명선, 딸 태승, 현금자, 사위 이정철, 금옥, 고금환

별초 전문별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